

FROM:<https://www3.nhk.or.jp/nhkworld/ko/news/418239/>

일반회계 총액이 역대 최대인 114조 여 엔이 되는 신년도, 2023년도 예산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자민 공명 양당 등의 찬성다수로 성립됐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마지막 질의 후 표결에 부쳐져 자민 공명 양당의 찬성다수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먼저 토론이 실시돼 자민당의 다카하시 하루미 씨가 “출생수가 80만 명을 밑돌아 국난이라고 해야 할 정도의 저출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심하고 결혼, 출산, 육아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일찌기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일본과 일본 국민을 지킨다는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예산으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입헌민주당의 무라타 교코 씨는 “방위비는 증액이 되는 한편, 중소기업대책비와 농림수산 관계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다”며 “기시다 수상은 어린이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고 공언해 왔으나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대책은 국회 심의에서 밝히지 않고 두 배 증가의 기초가 되는 예산 범위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부쳐져 신년도 예산은 자민 공명 양당 등의 찬성다수로 성립됐습니다. 신년도 예산은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액 등으로 일반회계 총액이 처음으로 110조 엔을 넘어 역대 최대인 114조 3812억 엔으로 성립됐습니다.